

보 도 해 명 자 료 (17.2.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감사원 ‘주의’ 때문에”...신재생 고정가격계약 ‘개점휴업’
(17.2.9, 전자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신재생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‘고정가격계약’이 시행 두 달째 개점휴업
 - 지난달 6일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계약도 이뤄지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1.6일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이후 아직까지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
 - 발전6사 기준, 1월에 5건(총 12.9MW)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기체결된 바 있음
 - 2월에도 상당한 물량의 계약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, 1월 계약 물량 이상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파악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 장 (044-203-5160)
박병기 서기관 (044-203-5172)

